

매독(梅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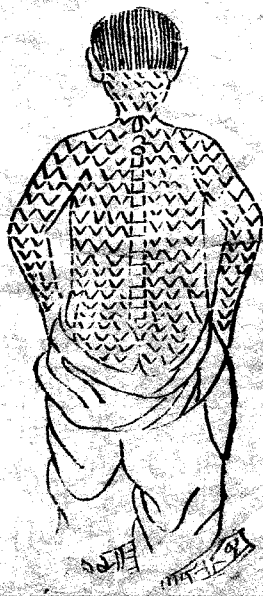
신좌섭 ■ 의사, 한국의학사

1. 매독의 명칭과 전래

우리 나라 매독의 역사는 16세기 초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선조 때 사람인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천포창(天疱瘡)은… 정덕년 이후(1521년 이후) 중국에서 도래했으며, 중국에도 전에는 이 병이 없었으나 서역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쓰여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책이지만, 『동의보감』 천포창 조에 인용되어 있는 탓에 조선 최초의 매독전문서로 인정받고 있는 『치포방(治瘡方)』이 명종(1545-1567) 때 간행된 사실도 16세기 초 전래설을 뒷받침해준다. 매독의 전래에 따라 전문 처방서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 책이 간행되었으리라 는 것이다.

매독진(syphilitic)을 ‘양매(소귀나무 꽃)’로 묘사한 데서 비롯된 명칭인 양매창(楊梅瘡) 외에 매독의 이름은 천포창, 면화창, 대마풍, 변화창 등으로 다양하였지만 ‘당창(唐瘡), 광동창, 당음’ 등은 그것이 중국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圖 瘡 梅 楊



『의종금강(醫宗金鑑)』 73권 편집 외과심법요결 중 양매창도(필자 소장) 2기 매독의 매독진을 묘사하고 있다

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에도(江戸)시대에는 당창, 류우쿠(琉球)창이라 하여 그 전래 경로를 알리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인체 모든 조직을 가리지 않고 침범

하여, 천형에 가까운 질병양상을 보이는 매독에 그 전래경로를 원망조로 지목하는 명칭을 붙인 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5세기말 프랑스 국왕 샤를르 8세의 나폴리 침공 이후 매독이 급속히 창궐하였는데, 이 새롭고 이상스런 병을 프랑스인들은 “나폴리병”으로 이름 붙였고 이탈리아인들은 “프랑스병”으로 이름 붙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용병과 낭녀군(娘女軍)”이라는 삽화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는 여성과 함께 이동하였고 그 여성들을 통하여 양국군은 매독을 교류하였다.

또한 유럽인들은 콜럼부스 배의 선원들이 신대륙의 원주민으로부터 매독을 옮겨왔다고 믿었으며 이에 반해 합중국 독립 이후 미국인들은 유럽에 원래 매독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 양 대륙간의 매독 근원설은 오랜 세월동안 역사학과 고고학계의 논란거리가 되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봉유설』에 따르면 매독은 16세기 초 중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전파되었지만, 문헌상의 기록으로 볼 때 크게 창궐한 것은 16세기말 임진왜란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해서 한국의학사와 질병사를 최초로 폭넓게 연구한 일본인 학자 미키 사카에(三木榮)는 우리 나라 매독이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이론을 입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왜구를 통해 일본에 매독이 전파된 것이 1510년경으로서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잡은 왜구의 침범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도 왜구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매독은 인간의 성적본능을 따라 전염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전쟁이나 무역, 약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악질적 양상 때문에 ‘누가 옮겼는가’에 대한 정치적, 종족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병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매독균은 국경을 가리지 않았다. 인간의 성적 본능은 동족의 이성과 적국의 이성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매독의 원인과 치료

『동의보감』에 따르면 천포창은 문둥병과 비슷하고, “헌대의 모양이 양매(楊梅)와 같으며 화끈화끈 달고 별절게 되어 진물이 흐르면서 가렵고 아프다. 눈과 코가 상하고 음경이 썩어 짓무르며 손이 오그라들고 팔다리와 몸이 문둥병과 같이 된다.

또한, 정조 때의 의서인 『광제비급』은 매독 전염의 경로로서 정도(精道), 익도(溺道), 유도(乳道)를 들고 있다. 정도는 남녀방사에 의한 전염을 일컫는 것이고, 익도는 같은 그릇(생활용구)을 함께 써서 여럿이 전염되는 것을, 유도는 젖을 통해 전염되는 것을 일컫는다. 중국 의서인 『석산의안(石山醫案)』을 인용한 것이지만, 매독이 성적접촉만이 아니라 조기매독 환자의 병소나 의류, 침구를 통해, 그리고 자궁내 선천감염을 통해 전

염된다든 사실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매독의 치료에 경분(輕粉-수은)을 주 성분으로 한 제제를 사용한 것은 동서가 일치한다.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도 전통적으로 살균제나 소독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나병이나 옴과 같은 피부발진의 특효약으로 사용되던 수은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매독에도 특효약으로 여겨졌다.

수은은 내복약, 외용약 이외에도 훈증법에 이용되었는데, 유럽에서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일인용 사우나에 해당되는 기구를 사용한 반면 『동의보감』에서는 “(항의) 심지에 참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 침대 위에 놓고 환자를 그 침대 위에 앉히는데, 무릎은 절반쯤 세우고 심지가 무릎 오금 아래에서 타게 양팔로 잡는다. 다음으로 흠이불을 온 몸에 덮어준다”고 하였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 속에서 수은 향을 피운 것이다.

이 때문에 매독을 치료하려다 수은 중독에 걸리는 사람도 적지 않아 “미독(微毒)에 걸리면 수은을 태워 연기를 마시는 데, 조심스레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였다. 또한 요통, 지절통, 풍습(風濕) 등에 사용되던 토부령도 특효약으로 사용되었다.

수많은 창(瘡) 중에서도 매독은 고대로부터 악명이 높던 문둥병에 비교될 정도로 살점과 뼈를 앓아가는 악창(惡瘡)이었기 때문에 “개짐(월경대)에 묻어난 혈흔을 물에 풀어 마시거나”, “동

물의 음경, 특히 사람의 음경을 삶아 먹으면 효과가 크다”고 믿었다. 월경수는 회임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정령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귀에 대한 퇴치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몸의 정기를 복돋워 병귀를 내쫓는 양면의 효과가 기대되었다. 한편 음경에 치료효과를 기대한 것은 매독이 음경을 침범하는 성병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생식기는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창조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혈어 무너져가는 육신을 회복시키는 힘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병, 폐병, 전간(癲癩, 간질) 등 악질의 치료에 효력이 있다고 믿어지던 사람의 간이나 쓸개도 매독의 특효약으로 알려졌다. 『조선실록』 명종 21년(1566년)의 기사를 보면 음창(陰瘡)에 간담이 좋다하여 “동활인서, 진제원, 홍제원, 종로 거리에 들끓던 걸인들이 근 4·5년 새에 자취를 감추었다... 간담을 위해 이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이 걸인에 그치지 않고 아동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간담이 귀해지자 값이 제법 높아 시신수습을 전문으로 하던 천민인 오작인들은 간담을 구해달라는 환자들의 청부를 맡기도 했다.

병태가 극단적이었던 만큼 별다른 치료수단이 없던 민간에서의 치료법도 극단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임질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개와 교접하여 병을 개에게 옮겨 떠나보낸다는 축출법도 널리 알려

져 있었다.

일체가 '조선위생풍습록', '조선의 귀신' 등을 통해 이같은 행태를 보고했다고 해서 이것이 일체의 조작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조선실록 등에서 드러나듯이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소위 휴먼 메디신(human medicine, 인체의 일부나 분비물, 배설물을 채취한 치료약)으로 알려진 이같은 전통은 우리 나라에만 존재했던 것도 아니며, 오래도록 칭송 받아온 미덕, 즉 허벅지 살을 떼어내 병든 부모를 공양하는 '할고행효(割股行孝)'나 손가락을 잘라내어 뜨거운 피의 정기를 죽어가는 부모의 입에 흘려넣는 '단지효양(斷指孝養)'의 또 다른 이면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병에 대한 치유관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오늘날의 과학과 도덕을 기준으로 과거의 치유관념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덜 문명한 시대를 살아온 조상들의 삶에 대한 피투성이의 애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3. 요약

통설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매독을 유럽에 소개한 콜럼부스의 서인도제도 발견(1492년) 이후 대략 30여 년만에 이 질병이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물론 1980년대 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AIDS가 지금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나큰 위력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15세기말의 교통수단이나 인적교류의 빈도를 감안한다면 매독의 전파력은 과연 놀랄만하다.

2차 세계대전 중 페니실린의 발명과 공중위생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는 후기(3기) 매독이나 선천성 매독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초기(1기)에서 후기(3기)에 이르는 수년~수십 년에 걸쳐 인체의 거의 모든 기관에 다양한 병변을 일으키는 매독은 "매독을 아는 자는 의학을 아는 자"라는 윌리엄 오슬러의 말처럼 그 자체가 의학교과서로 여겨졌다.

1932년부터 1972년에 걸쳐 431명의 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타스키기 연구(Tuskegee Study, 매독환자에게 치료를 하지 않고 그 자연적 질병경과를 관찰한 연구)는 인종차별, 인체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매독에 대한 의학적 관심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 나라에서 매독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도 후진국, 특히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는 지역에서 매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1983년 미국 내 매독 환자의 남녀비율이 26:1인데서 나타나듯이 매독은 이제 동성연애자의 병으로 새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대는 바뀌었으나 매독은 아직 전쟁병, 세대병으로서의 상징적 위치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다. ♣